

지역 상조업체 영세… 소비자 선택 신중해야

광주·전남북 등록업체 19개… 전체의 7.1% 불과

자본금·선수금·가입자 수 수도권업체보다 열악

광주·전남 등 지역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상조업)가 자본금과 선수금, 가입자 수에서 수도권 대형업체에 비해 열악해 그만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흙페이지에 공개한 상조업체 주요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시·도에 등록된 266개 상조업체 중 광주시와 전남·북에 등록된 업체는 19개로 전체의 7.1%에 불과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절반 이상인 141개(53%)로 가장 많았으며 영남권이 76개(28.6%)로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

각했다.

가입자 수 역시 수도권이 272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4%가 수도권 소재 업체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보람상조' 등 수도권 대형업체의 시장 점유율(총 선수금 100억원 이상 55개사의 56.4%인 31개사가 수도권에 소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18개사로 전체의 7%에 불과했지만 이를 업체에 가입한 고객수는 총 240만에 달해 전체의 65%를 넘었다. 반면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업체

는 136개로 업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가입자는 3만5000여명에 그쳐(전체 가입자의 9%)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피해와 관련이 높은 선수금(소비자피해보상보험협약에서 규정한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금으로 2013년 40%로 상향)별 현황도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가 10억 원 이하의 영세업체에 비해 수와 규모면에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 편중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형 상조업체는 자본금과 부채비율, 자금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지표에서도 열악했다.

2013년 9월 기준 광주·전남 12개 등록업체 중 3곳만이 법정자본금 기준(3억원)을 초과했으나 나머지 업체

는 이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대다수 업체가 선수금 비율은 준수하고는 있지만 자본금을 초과한 과대한 부채와 영업실적 미비로 개점휴업 상태인 업체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중도 해약환급금 미지급과 서비스 미이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은 우려된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 10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접수된 해약 환급금 지급과 해약 거부 등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19건, 2011년 38건, 2012년 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송권준 광주시 경제산업정책관실 계정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자체 차원에서 위반행위 조사

와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상조업 등록 여부와 선수금 보전 비율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가입하고 가입 후에는 자신의 선수금과 예치금을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상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자본금과 선수금 보전현황, 예치은행 지점 연락처 등 주요정보와 영업 현황, 휴·폐업 여부 등 유의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상조업체의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정보마당→사업자정보→선불식 할부 거래 사업자란에서 해당 상조회사를 검색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농협, 작년 원예농산물 2000억 매출

새 브랜드 '야미' 일조

적인 사업참여, 신상품 개발 등 현장 중심의 사업추진 결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로 농협중앙회의 연합사업 평가에서 지역본부 광역연합사업단이 상반기 1000억원 달성을 하반기 1500억원의 달성을 수상했고, 나주와 목포신안조합 공동사업법인이 400억 달성을 순천조합 공동사업법인이 200억 달성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종수 전남농협 본부장은 "연합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농업인들이 판매에 걱정하지 않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한 연합사업단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지역 백화점 “갑오년 신년 첫 세일 합니다”

경기침체로 소비가 둔화하면서 힘든 한 해를 보냈던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2일부터 청미의 해인 갑오년(甲午年) 첫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의 신년 정기 바겐세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빈풀, 폴로 등 1년에 단 두 번만 행사하는 시즌오프 행사를 진행하는 트레이디셔널(TD)브랜드의 겨울 상품을 최대 30% 할인하며, 올 한해 동안 고객들로부터 가장 인기를 얻었던 아웃도어 특가전을 마련해 최대 40%가량 할인된 가격에 다양한 겨울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년세일과 함께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14일 까지 총 25종의 상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설 선물 예약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2014년도 맘의 해를 맞아

오늘부터 신세계·롯데 등

빈풀·폴로 최대 30% 할인

복 상품전 등 이벤트 풍성

4~5일 양일간 새해 럭키박스 행사를 진행, 당일 구매영수증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같은 기간 신년 정기 바겐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세일은 새해 꿈을 모두 이루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도전'을 테마로 기획, 복(福) 상품전 뿐만 아니라 신년 알뜰세일, 경품행사 까지 풍성한 이벤트와 상품행사를 선보일 계획이다.

평소 노세일을 표방해오던 빈풀, 폴로, 타미힐피거, 라코스테, 헤리츠, 헨리코튼 등 핵심 브랜드

가 대거 참여해, 30% 시즌오프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SPA(제조·유통 일괄화 의류 매장)브랜드 ZARA는 60% 시즌오프를 진행하며 하루 고객 20명을 한정, 1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롯데상품권도 증정한다.

여성과 남성복, 아웃도어, 스포츠 디자인과 등 겨울 대표 상품과 패션잡화, 가정, 건강식품 등 전 상품군에 걸쳐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세일 기간 동안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2일 단하루 복주머니에 정상가보다 30~70% 할인된 상품을 담아 판매하는 복(福) 상품전을 연다. 5일 1층 정문에서는 전문 역술인을 초청 신년 운세풀이를 진행하며 7일에는 걸그룹 티아라를 초청해 팬 사인회도 진행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올 소품 주제는 ‘말’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백화점에서 모델들이 컴퓨터 재봉기에 말 이미지를 입력한 뒤 자수로 새겨 액자와 방석, 기방 등 소품을 만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상의 내일 신년인사회

광주·전남지역 상공회의소가 3일 각각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광주상공회의소는 3일 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4층)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권오봉 전남도

경제부지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희망찬 새해의 포부를 밝힐 계획이다.

여수상공회의소도 이날 오전 11시 여수 엘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박준

영 전남지사, 김성곤·주승용 국회의원, 김충석 여수시장을 비롯한 도·시·의회 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갖는다.

순천상공회의소는 같은 날 오전 11시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광양상공회의소는 오후 2시 광양 호텔필레모 그랜드볼룸에서 각각 신년인사회를 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배달음식 제왕은 ‘치킨’

자장면 제치고 1위

피자는 '5인 이상 가구'와 '월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자장면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5인 이상 가구 중 피자를 선택하는 비율은 25.4%(자장면 19.4%)였으며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 중 피자의 선호도는 23.2%(자장면 16%)였다.

조사결과 '치킨 등 닭요리'를 주로 시켜먹는다고 답한 비율은 42.4%에 달했지만 '자장면 등 중화요리'의 비율은 21.5%에 그쳤다.

피자를 꼽은 응답자의 비율은 16.6%로 그 뒤를 떠 있고, 보쌈·족발을 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10.1%였다.

치킨은 가족 구성원수, 월 소득, 연령대, 주거지역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대부분 가장 선호하는 배달음식으로 꼽혔으나 60대 이상 계층에서만 자장면을 제치고 가장 많이 시켜 먹는 음식 1위에 올랐다고 1일 밝혔다.

치킨은 가족 구성원수, 월 소득, 연령대, 주거지역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대부분 가장 선호하는 배달음식으로 꼽혔으나 60대 이상 계층에서만 자장면을 제치고 가장 많이 시켜 먹는 음식 1위에 올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전국 3002개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자기기입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합뉴스

분양문의 011-611-1288 · 062-372-1607 해남 동초등학교 후문 앞(성동리회관 옆)

“프리이엄 빌라의 새로운 기준” 미림빌 선착순 분양 중!

즉시 입주

1층 주차장

A타입 27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2층

A타입 27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3층

A타입 27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4층

A타입 33평 2세대 B타입 28평 2세대

최고급 도시형 생활주택

최고의 전망과 학군

엘리베이터 설치

친환경 편백나무 시공

최고급 인테리어 시공

고급 가스오븐렌지 · 식탁 설치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결혼 정보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성사율 호남 1위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 男 | 女 | 추천 회원 |
|-------------------------|----------------------|-------|
|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 전문적 회망 여성 25~38세 | |
|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 오클스트리단원, 회사원 26~41세 | |
| 공무원(5급~9급) 27~42세 |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 |
|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 |
|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 |
| 은행원, 연구원 29~49세 | 공무원(5급~9급) 27~42세 | |
|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 |
| 사업가, 자영업 29~39세 | 간호사, 은행원 26~47세 | |
| 세무사, 연구원 29~48세 |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 |
|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 |
| 교사, 교수 28~49세 |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 |

초 혼

재 혼

임페리얼 퀸

(02) 521-4405
(063) 275-7766